자면서 찍은 데이터.

측정대상: 정찬혁

측정시간: 새벽 약 3시 30분경 ~ 아침 7~8시

강한 스트레스 상태

256hz 1024개 데이터 샘플로 4200번 측정

총 4200개의 (T+A)/B데이터 중에 아웃라이어 값 500여개

제외 후 3715개 데이터 plotting

아웃라이어 비율 약 12%. 정상데이터 약 88%.

기존 정확도와 유사함.

스크린샷, 텍스트이(가) 표시된 사진

자동 생성된 설명

결과값.

평균 (T+A)/B값 1.7

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
| 데이터번호 | (T+A)/B | 지난시간 |
| 0~500 | 1.72 | 30분 |
| 501~1000 | 2.07 | 1시간 |
| 1001~1500 | 2.61 | 1시간30 |
| 1501~2000 | 1.50 | 2시간 |
| 2001~2500 | 2.40 | 2시간30 |
| 2501~3000 | 1.21 | 3시간 |
| 3001~3500 | 1.22 | 3시간30 |

(초당256개 데이터 수집\*데이터1024 = 4초)

(4\*500개 샘플 = 약 33분. 실제 시간은 30분이 아니라 33분임)

위 그래프와 표를 같이 보면 인간 수면의 주기 때문에 값의 범위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나 싶음. (REM -> Non-REM)

이에 졸음이라는 임계값을 1.5 정도로 세팅해두고 추후에 수정 및 조정하는 것을 제안함.

눈 뜸 = 0.6 이하

눈 감음 = 0.6 이상

졸음 = 1.5이상(값이 변할 가능성 높음)

졸면서 측정한 데이터

측정대상: 배태현

측정시간: 00시 무렵

졸면서 측정

256hz 로 약 25분가량 측정.

데이터 파일 : recorded\_data\_2024-11-02\_00-51-09.csv

텍스트, 라인, 그래프, 폰트이(가) 표시된 사진

자동 생성된 설명

측정결과 졸았을 때 실제 (T+A) /B 의 값이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임.

측정 데이터: recorded\_data\_2024-11-02\_00-51-09.xlsx에 저장되어 있음.

졸음상태일 때 추정한 비-집중 구분선인 0.6을 결코 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줌.

1.5라고 사전 추정한 졸음 구분선이 1.2나 1.3정도로 낮아져야 할 수도 있음.